

조감도

근로자 영유아보육시설

Kindergartens & Nursery Facilities for Labo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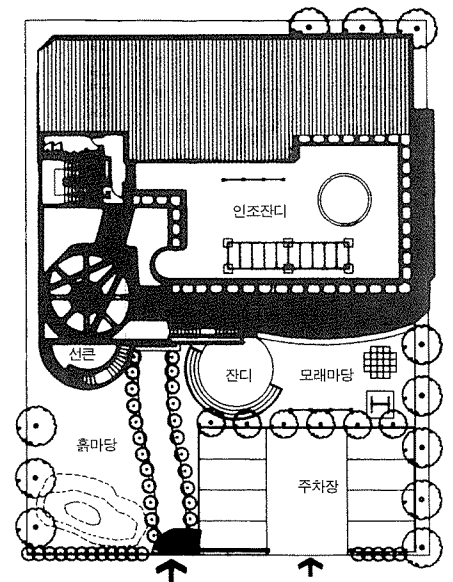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육문화시설과 함께 영유아보육시설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두우건축(박용수+손태욱)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8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아키텍건축안이, 가작에는 시·증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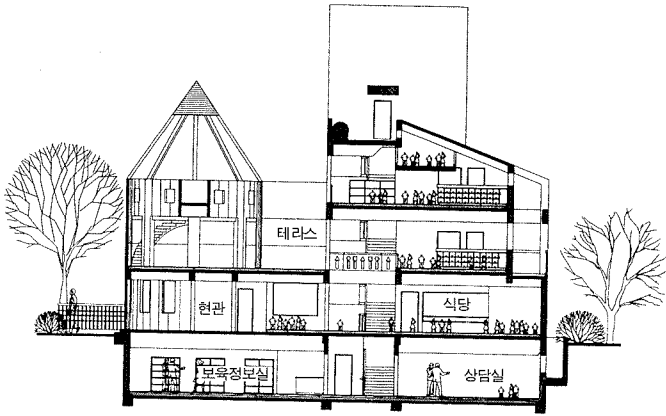
당선작

두우건축
(박용수+손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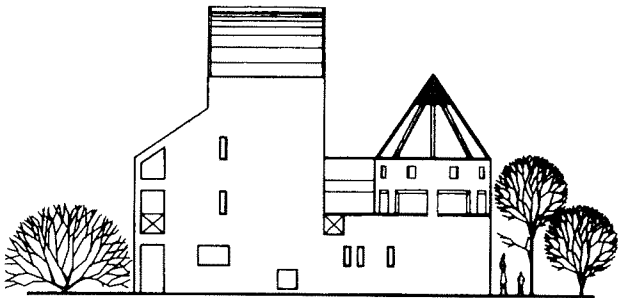
지역/일반 주거, 준공업 지역
 대지면적 / 360평(1,200㎡ : 세로 40m, 가로 30m)
 건축면적 / 512.1㎡
 건폐율 / 42.6%
 연면적 / 1,271.82㎡
 용적률 / 105.9%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조
 외부 마감 / 무기질 석재 뿔칠, 복층유리+알미늄 후레임
 주차대수 / 8대(옥외주차)
 설비방식 / 난방 - 바닥 관벌히팅(온수보일러)
 냉방 -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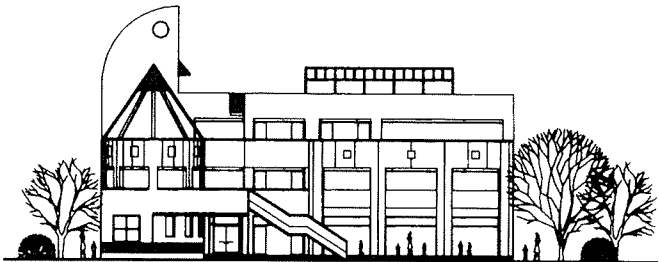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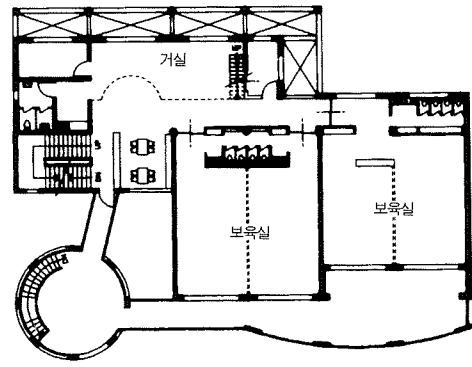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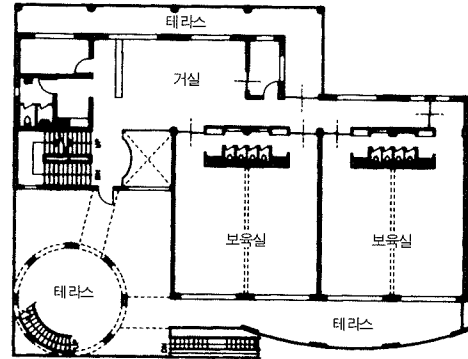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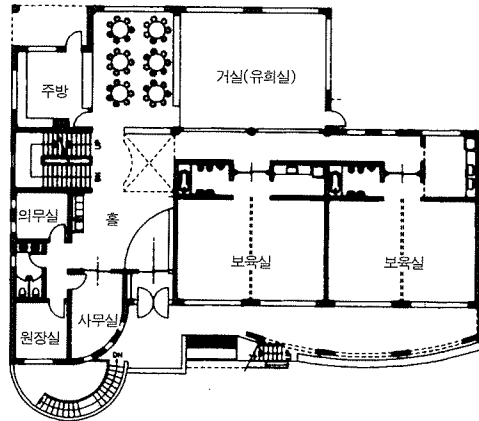
정면도



3층



2층



1층

평면도

배치계획

보육실-테라스-모래마당-흙마당에 이르는 놀이공간의 체계를 설정하고 이에따라 놀이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건물의 후면에는 서비스마당과 영아전용의 놀이마당을 별도로 마련한다. 건물의 상층부에는 적극적인 옥외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지상과 연결시켜 대지의 효율을 높인다. 놀이시설들

은 남향에 배치하여 충분한 태양광을 받게하며 한눈에 사무실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단면계획

유아들의 스케일에 적합하고 교사들의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규모의 치수를 고려한다. 적절한 위치에 뿔림공간, 다락 등을 설치하여 상·하층의 연결성을 높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행위를 이끌어낸다. 옥외의 테라스도 아래 윗층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연결하고 계단을 두므로써 높이의 변화에 따른 온갖 세상을 경험케 한다.

평면계획

공간의 분화와 다양한 경험의 질은 비레하나 현실적으로는 적정

한 수준에서 공간의 중복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식당과 유희실, 거실과 복도, 각 보육실들의 간막이벽 등을 가구와 가변벽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육실은 모두 남향에 배치하고 유희실도 충분한 빛이 들도록 배려한다. 실내공간을 다양한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풍부한 놀이의 형태를 경험케 한다.